



장쯔이·아자니·패닝 자매 '칸의 여인들' 제 72회 칸 국제영화제에 세계 각국의 영화 스타들이 모여들고 있다.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영화 '라 벨 에포크'로 칸을 찾은 중국 배우 장쯔이와 프랑스 출신 이자벨 아자니, 칸영화제 최연소 심사위원을 맡은 미국 배우 엘르 패닝과 그의 언니이자 배우인 다코타 패닝(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칸·프랑스 | AP·뉴스시스

칸 이모저모

봉준호 '기생충' 스포일러 금지 당부

●... '기생충'을 경쟁부문에서 공개하는 봉준호 감독은 공식 상영을 앞두고 칸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외 취재진에 스포일러가 될만한 이야기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직접 쓴 서문을 통해 "요즘 관객들은 기대작 개봉을 기다릴 때, 평소 즐겨 찾던 영화 사이트도 멀리하고 사람 많은 극장 로비에서는 일부러 헤드셋을 쓰고 음악 볼륨을 높인다"며 "예고편 등을 통해 노출된 두 남매의 과외 알바 진입 이후의 스토리 전개에 대해서 최대한 감추신다면 저희 제작진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미경 CJ 부회장, 10년 만에 칸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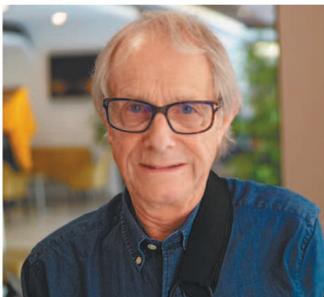
●...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칸국제영화제를 방문, 22일 오전 5시 루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공식 상영에 참여했다. 이 부회장은 CJ엔터테인먼트가 투자 배급하는 '기생충'의 크레디트에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EXECUTIVE PRODUCER)'로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이 직접 칸을 찾은 이유는 봉준호 감독 및 송강호 등 출연진의 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9년 박찬욱 감독의 '박쥐'가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했을 당시 칸을 찾은 바 있다.

이해리 기자의 여기는 칸 | 3번째 황금종려상 도전... '거장' 켄 로치 감독을 만나다

'나, 다니엘' 이후...우리 사회는 나아진 게 없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고용주-노동자 갈등은 예전과 같고 약자 위한 정부 입장은 꿈쩍도 안해" '소리 위 미스드 유' 경쟁부문 출품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새 영화 '소리 위 미스드 유'를 내놓은 영국 '거장' 켄 로치 감독. 칸·프랑스 | 이해리 기자

영국의 영화감독 켄 로치(83)는 흔히 '블루 칼라의 시인'으로 불린다. 영국 BBC 다큐멘터리 연출자로 출발해 50여 년간 소외받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시선을 둔 작품 활동을 해와서 얻은 명칭이다. '거장'이란 수식어도 부족하지 않다. 2006년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2016년 '나, 다니엘 블레이크' 두 차례 칸 국제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새 영화 '소리 위 미스드 유'를 내놓은 켄 로치 감독을 19일(이하 한국시간) 칸에서 만났다. 세

계 금융위기 여파로 빚더미에 앉은 가정은 그린 영화는 임시직 택배기사로 생계를 꾸리는 가장을 통해 밤낮없이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노동자의 삶, 불안정한 고용의 여파가 한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담는다. 사회보장제도의 맹점을 파고들면

서도 존엄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른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도 맥이 닿는다.

켄 로치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이슈(노동)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고 토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 과연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분명한 건 정권의 뉘이나 정책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약자들을 위한 정부의 입장은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소리 위 미스드 유'는 영국 중소도시 뉴캐슬이 배경이지만 그대로 한국 사회에 대입해도 될 만큼 기시감이 크다. 감독은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어도 "고용주와 노동자의 갈등은 예전과 같다"고 짚었다.

"예전에는 공장에 줄 서서 일하는 '워커'들에게 고용주가 '더 열심히 해'라고 말했다면 지금은 어디에도 고용되지 않는 비임금 근로자(self-employed)가 많다보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할 수 있다. 개발과 기술은

여전히 착취하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켄 로치 감독은 꾸준히 목소리를 낸 덕분에 '사회파 연출자'로도 통한다. 최근 작품을 시작한 창작자들, 특히 젊은 한국감독들에 하고 싶은 말을 문자 그는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영화를 만드는 건 굉장한 전통이다. 영화감독을, 사람을 탓할 수는 없다. 투자하는 이들이 가진 문제가 더 크다."

그는 칸 국제영화제가 고수하는 '전통'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최근 넷플릭스 등 OTT(인터넷 TV) 플랫폼 다변화 속에 영화의 극장 상영 방식의 변화가 있는 것에 그는 "개인의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이어폰을 꽂고 교류하지 않는 건 문제"라며 "극장서 우리는 색다른 경험으로 소통할 수 있다. 칸이 전통을 간직하는 건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칸·프랑스 | golf1024@donga.com

한·아세안 영화기구 출범... '한류 3.0 시대' 연다

오석근 위원장 "정부 차원의 품앗이" 11월 정상회담서 구체적 구상 공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참여하는 공동 영화기구 출범한다. 영화 교류를 넘어 관련 정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이를 통한 시장 확대와 인적교류까지 아우른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칸에서 열리고 있는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 참석 중인 오석근 영화진흥위원장은 21일(이하 한국시간) 취재진과 만나 '한·아세안 영화기구'(ARFO·ASEAN-ROK Film Organization) 출범을 알렸다.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등 10개국이 참여한다.

'한·아세안 영화기구' 논의는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에 모인 한국과 아세안 국가 영화 정책 관계자 및 영화 전문가들이 만나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올해 다시 칸에 모여 영화기구 출범을 공식화했다. 오석근 영화진흥위원장은 "아세안 국가들과 정부 차원에서 문체부 영화 정책 논의를 비롯해 창작활동을 결합하고 서로 지원하면서 인적 교류까지 이뤄나가는 품앗이의 개념"이라며

"영화를 통한 한류의 다음 시대, 한류 3.0을 열 수 있다는 구상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K드라마로 시작한 한류가 K팝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확인한 가운데 이젠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한류를 추진하겠다는 포석이 담겼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로케이션 패키지' 구성이다. 현재 할리우드 대작들이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에서 로케이션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공동 정책 추진이기 때문. 할리우드 등 외화들은 대부분 로케이션을 진행하는 아시아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는 '인센티브제도'를 겨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석근 영화진흥위원장은 "현재 나라마다 제각각 이뤄지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는 시스템을 추진해 적용하겠다"라고도 밝혔다. 실효성을 갖춘 정책 마련을 중심으로 교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아세안 영화기구'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통해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구상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부산에 영화기구 사무국도 마련한다. 칸·프랑스 | 이해리 기자

신제품 가격 공고 JUUL Labs의 Pods 출시

판매 개시일: 5월 24일



Pods - 2 Pack Fresh, Classic, Delight, Tropical, Crisp. 규격 0.7ml/Pod ₩9,000

Pods - 4 Pack Fresh, Classic, Delight, Tropical, Crisp. 규격 0.7ml/Pod ₩18,000



이 공고는 담배사업법 제18조 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 2항 및 3항에 의거한 수입 담배의 판매가격 공고입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